朝鮮日報
第二夕刊
三十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施政演說奏上

【東京電話同盟】米內首相은 三十日午後二時 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오는一日 議會에열린 施政方針演說의 內容에關하여奏上, 또 內相도 同三時半參內, 財政演說內容에關하여 奏上하엿다

淺間丸事件과英態度
今後東京會談에期待
英政府友好的解決希望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政府側에서는 淺間丸事件에 關하여지난二十六日 크레기駐日大使를通하여 日本政府의 抗議에對한回答을 發한後 東京交涉의 發表를 中止하고 近近크레기大使와 有田外相의會談이 再開될것이라고 期待하고잇는模樣이다 日本政府가 數日中에 再抗議를 提出할려는 意向이라는 日本外務當局者의言明은 英國官邊의期待를 若干背反한 感이잇다 그런데도不拘하고 英官邊에서는 二十九日 「有田크레기會談의 進行狀態에 鑑하여 會談內容의 發表를延期하기로決定하엿다」라고 言明하엿다 一方 消息通은 英政府가 이러한言明을 한것은 英政府가 日本의 國民感情의 이以上의惡化를避하고저 急速한友好的解決을 切望하고잇는證左라고보고잇다 그런데 이에 關하여 廿九日 타임쓰紙 同紙外交記者는 日英交涉의前途는 반드시悲觀할것이아니라고述하고잇는데 이것은 英官邊의和協方針을示唆하는것이라하여 興味깁다 그要旨는 다음과갓다 英政府가 會談發表를延期한것은 그以前에 東京會談의成果 如何를詳細히 알려는때문이다 東京及倫敦의 淺間丸事件에關한交涉이 靜穩한會談에終始하면 이것이야말로 日英間諒解成立의 絕好의機會이라고 생각하고잇는模樣이다 淺間丸事件에關한 最初의 意見交換은 日英雙方이 各各다른角度로서 卽,日本側은 國家的威嚴保存의 立場으로부터 英國側은 法律的權利를 主張하는 立場으로부터 交涉에 當하엿스므로 一觸卽發의 危險을 招來하엿다 그러나 二十七日 有田外相과의會談에關한 크레기大使의 報告는 日本이 再抗議를 發出할것이라고는 말하지안햇다 如何間現在도 아직이에關한 日英會談이 友好裡에進展되어 어떠한安協點에 到達할수잇는 希望이 全然업서진것은아니다 (寫眞上,有田外相 下,크레기大使)

新防共協定締結
伊外相我大使에示唆

【부다페스트發電】傳하는바에依하면 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된東南歐駐在日本大公使會議에 出席할 天羽駐伊大使는 離羅出發前 차노伊外相과 長時間에 亘하여 會談하엿는데 이때 차노外相은 萬若日本이 對蘇接近을 理由로 現在의防共協定을 不滿으로여긴다면 新防共國家群을 組織할수가잇는것은 아니라고 示唆하엿다고한다 그런데 日本大公使會議 開催地로서 부다페스트를 가린데 對하여 外交界에서는 匈牙利政府가 從來부터 猛烈히反共的態度를 取하고잇던 事實에 비추어 자못意義가잇는일이라한다

大規模空襲
英空軍省發表

【倫敦二十九日發同盟】從來英商

孝明天皇御例祭

【東京電話同盟】孝明天皇例祭의 三十日 宮中에서는 午前十時 天皇陛下 御親拜로 皇靈殿에서 嚴肅히御祭典을 執行하엿다 三笠宮殿下를 奉始 各皇族御參列 松平宮相以下 宮內官도參列 三條掌典長以下 奉仕하여 皇靈殿의 御儀가進行되어 掌典長이 恭遜히祝詞를奉奏하자 때는午前十時 天皇陛下께옵서는 黃櫨染御袍의 御束帶를입으옵시고 出御 御親拜하옵섯다 다음에 高松宮士 皇太后陛下의 御代拜를奉仕 皇族의 御拜後諸員拜禮 午前十一時頃 御儀를마치옵섯다

橿原青年道場
二月四日奉獻式

【大阪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記念事業으로써 橿原神宮外苑에 建設中인 日本青年修鍊大道場(橿原道場)은 昭和十四年一月以來 各方面으로寄贈된 淨財로 各建施設이 完備되고 弓道場을 남길뿐으로또 體育施設은 大本道場을비롯하여 大野外公堂、屋內會議室等이 이번에 完成되엇스므로 오는 二月四日午前十時부터 盛大한奉獻式을 擧行하고 各種施設을實施하여 이에意義깁흔第一步를 내드디기로되엇다

▼크리크를 건너敵을急襲하는 皇軍勇士(廣西戰線)▲

伊、日本主張支持
同樣事件發生時는同樣抗議?

【羅馬廿九日發同盟】淺間丸事件의 解決如何는 今後中立國에對하여 新先例가된다는見地에서 伊太利政府는 그推移를注視하고잇는데 廿九日附멧사제로紙倫敦特電은 英國의 對日回答의 不徹底를 指摘하고 更히 好轉을보히던 日英關係가 淺間丸事件으로하여 惡化하려하고잇슴에對하여 倫敦의 有力方面에 憂色이 濃厚하다고 報道하고잇다 一方伊太利政府側은 最初부터 日本側主張의 合理性을 支持하여 伊太利船에 그가튼 事態가 發生할時는 同樣의 抗議를할것이라고하고잇다

天津租界封鎖强化로
米國朝野가極重大視
畢竟正式抗議提出乎

【紐育二十九日荻原同盟特派員發】天津租界封鎖强化의 뉴쓰는通商條約失效後 極東으로부터 처음오는 刺戟的뉴쓰라하여 注目을끌고잇는데 紐育諸紙는第一面에이것을 詳報,特히뉴욕타임쓰紙는 題目에『英國租界封鎖强化로飢餓切迫,日本의食糧搬入禁止로 支那人多數는瀕死狀態,米國側은 抗議를考慮』라고쓰고해랄드트리분紙도 題目에 『天津封鎖는 英米에對한 報復이아니라고 日本側은 主張하고잇지마는 境界線에電流를 通하엿다』고述하고잇다 또 二十九日UP天津電에依하면 在天津米人商業會議所에서는 抗議提出을 考慮中이라는데 右는아마從來의例에依하여 米國務省에보내어 米國政府를通하여 日本政府에抗議를 提出하게될模樣이다同時에在天津米國領事는 對日抗議를提出하려고 具體的材料를 모으고잇다한다 그리고 이租界封鎖强化의뉴쓰는 淺間丸事件에伴하는 對英示威或은 條約失效에伴하는 對米示威라고解釋되어 後報를기다리고잇는데 如何튼 이事件은 오는三十一日열리는 上院外交委員會의 日米問題討議에 한暗影을던질것으로 豫想되고잇다

淺間丸事件과는無關
天津封鎖에對한英官邊見解

【倫敦二十九日發同盟】日本軍當局이 天津의 英租界封鎖를 强化한것은 淺間丸事件을 에워싸고 日英兩國關係가 大端히 微妙한 動向을 보이고잇서 各方面의注目을끌고잇는데 右에關하여 英國政府代辯者는 二十九日 英政府는 이를淺間丸事件의 報復手段이라고는 看做하지안는다고다음과가티말하엿다 天津租界의 境界線에 다시電流를通하므로써 天津租界封鎖를 强化하엿는데 英政府는이를淺間丸事件과 關係한것으로 看做하지안는다 그러므로 이에關하여는 어떠한 對日抗議를한다하여도 이것은 淺間丸事件과는 別個로 될것이다 日本側도 今回의 强化措置는支那人의 不正行爲를 彈壓하려는때문이다라고말하고잇다

東京府經濟使節團
바다비아到着

【바다비아二十九日發同盟】蘭印의日本經濟製品의 輸出販賣擴充及 優秀製品紹介를 目的으로하는 東京府派遣의 經濟使節團一行八名은 蘭印에서 橫濱,名古屋紹介,展覽會開催코자 二十八日스라바야市에到着,同日바다비아에到着 一行은 二月十八、九兩日頃當地에滯在 展覽會를開催하고스라바야市로가서 同地에서 다시展覽會를開催할것이다 그리고 東京市派遣의 蘭印經濟使節團一行七名은 去二十四日 스라바야市에到着하엿다

에콰도르
又復叛亂說

【리마二十九日發同盟】지난十日부터 三日間에亘하여에콰도르에서 擧行된 大統領選擧에際하여 同國全域의叛亂이잇섯는데 二十九日 리마에達한 情報에依하면 二十九日早朝또다시에콰도르의에스베랄다스市에서 반하민中佐等의 革命運動이發生되어 ...

米海軍擴張案
"二個年一割"로落着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總額十三億弗(米國海軍의 二割五分) 擴張을目標로하는 빈손下院海軍委員長案이 海軍委員會에서 앞서 一擧에 五個年分을 削減하고 또 艦艇計畫期限을 二個年으로하고 擴張率을 一割에 먹추리는 第二次削減을 提案하엿는데 스타크海軍作戰部長은 二十九日同委員會에 臨하여 海軍으로서는 第二次削減案에는 反對하지안는다고 證言하엿다 그리고 빈손下院海軍委員長은 委員會終了後 다음과가티말하엿다 下院海軍委員會는 二個年海軍擴張案을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結局이 案을可決하게될것이다 二割五分 擴張案에 對하여는今後世界情勢의 推移를보아서 그態度를決定하게될것이다

輸入銅鑛石
配給方針檢討

外國에서 輸入하는 銅鑛石中 朝鮮에잇서서의 乾式製鍊業所需分은 日本産金振興會社朝鮮支社에서 帝國鑛業開發會社로부터買取하여 製鍊業者에게 委託製鍊시키고 그製品인 金銀銅은 各各政府又는 統制組合에 賣却시키려는 政府의配給計畫은 議者의 決定되엇는데 其後帝國鑛業開發과사이에 買鑛條件 各製鍊業者와의 委託製鍊條件等의 詳細決定을要하므로 産金振興事務部長 村上參事는 目下渡東하여 그交涉에當하고잇다

高周波增資株公募

日本高周波에서는 二月八日臨時總會를열고 五倍增資를決議할터인데 卽時正式認可申請을하여 認可된後增資株式十萬株의公募를하고二月下旬拂込을徵收、三月中旬增資報告總會를開催할豫定이다

伊、最高軍事會議
獨佛斥國境에大部隊增兵?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는 嚴正中立을 堅持하면서 一方萬一의 事變에 對處하여 着着戰時體制를 强化하고잇는데 莫索里尼首相은 二十九日 陸軍소즈大將以下로진、아모로소、南大將、소소나르드大佐等陸軍首腦를 베네차宮으로 招致하고 最高軍事會議를開催 伊太利의 防衛에關하여 時餘나協議하엿다 이어서 베르지아大將을招致하고 伊太利本土의 防空設備와 訓練狀況을 聽取하엿다 이結果 伊太利政府는 佛、獨、유고國境에 相當大部隊의 增兵을 決行하기로될模樣인바 消息通은 伊太利政府의 突然한 이措置를 重視하여 右는 巴爾幹近東方面의 事態緊迫에 備한것이라고 觀測하고 今後伊太利政府의 動靜에 重大關心을 가지고잇다

外相演說骨子決定
帝國不動의基本方針强調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日定例閣議席上, 一日의再開議會劈頭에行할 有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案을 審議한結果 同原案대로 決定하고 字句修正을 三十一日中에 有田外相으로 一任하기로되엇는데 右演說內容에는 다음가튼 對外關係 當面의重要問題에對한 帝國不動의 基本方針이 闡明되어잇다

一、外交基本方針
一、支那中央政權成立에對한 帝國의基本方策闡明
一、對蘇關係
一、諾蒙坎停戰協定問題
一、淺間丸事件
一、日米通商條約問題
一、支那에關한諸問題
一、各國과의通商關係問題

政友、黨大會開催
對議會策을決定

【東京電話同盟】政友久原派의 第七十五回臨時黨大會는 三十日午後二時부터 芝三緣亭에서 久原總裁以下 所屬代議士、評議員其他 黨員二百餘名 出席下에開催되엇다 이날午前十時부터 正午에 常議員會, 午後一時에幹部會를 마치고 再開議會에 臨할 黨의態度를 決定한후 黨大會로 옴겨 大口常任總務를 議長에推薦하고 岡田幹事長의 人事가잇슨다음 田中好氏로부터 會務報告, 豐川正氏가 宣言을 朗讀 滿場一致로可決하고 이어서 板野友造氏의 常議員會의 經過報告後 新常議員을 選擧한다음 久原總裁로부터 議會에臨할 黨의態度를 說明 黨員을激勵하고 「天皇陛下萬歲」를 三唱하고 午後五時 大會를終了

【東京電話同盟】政友會中島派는 三十日 第七十五議會에臨할 黨의態度를 決定하고자 午前十一時부터 東京會館에서 臨時大會를 開催, 議會對策을 決定하엿다

議會對策協議
明日臨時閣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臨時閣議를 열고 이미 決定된 三十一件以外의 稅制改正法律案等 議會提出法律案의 取扱方針을 비롯하여 議會對策을 協議決定하기로되엇다

增米計畫遂行次
各道主任官會議
二月五、六兩日總督府에서

新年度부터着手하는 增米計畫中 土地改良關係는 日前總督府에서 各道主任官會議를 열엇거니와 이번에는 耕種法改善關係事項을 協議하고저 二月五日부터 二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 各道農務課長, 農事試驗場長, 穀物檢査所長을모아 協議하기로되엇다 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

▲年次別增産目標十五年度道別增産目標 ▲增産方法▲耕種法改善要點▲計畫遂行上初年度助成施設等

物價、經營兩課異動

總督府에서 新設計畫中인 物價調整課와 經營課는 三十日定例局議에 附議하여 正式決定을 하기로되엇다 그런데 物價調整課와 經營課의 人選은 ... 二月四、五日頃 正式發表하게되리라한다

日本的學制確立
國民校敎則成案

【東京電話同盟】昭和十六年度부터實施하는 國民學校開設에關하여는文部省에서 目下 具體案準備中인데 그中 國民學校敎科調査委員會에서는 二十九日省內에서 委員會를 열고 委員長中野 普通學務局長으로부터 國民學校敎則案의 說明이잇섯는데 大體로 當局의 方針을 明示하엿는데 國民學校의 敎育의根本은 一、皇國의道를 修練시킬것 二、敎科의 分離를 避하여 知識의 綜合具體化를圖할것 三、國民生活에 卽應한敎育 四、兒童의 心身發達에 應하여 敎科敎材를 整理按配하여 國民學校 八年을 一貫한敎育으로할것 等四原則인데 要는 歐米의範을 脫하야 我國의進運에 適應하여 참된日本的 學制를確立하려는 것이다

日米條約失效後도
特許、商標權有效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附 뉴욕타임쓰紙의 華盛頓特電에依하면 日米通商條約이 失效한 現在에잇서서도 第十五條의 專賣特許權及 商標權에關한 規定은 從來대로效力을가지고 잇다고解釋되고잇다 그理由는 右條約은 單只 日米交涉에依하여 締結된것이아니고 一八八三年 巴里에서 調印된 國際工業權保護協定의 第二條第一項에 該當하는것으로서 따라서 日本이巴里協定으로부터 脫退하지 안는限 日米通商條約 第十五條는 其後도有效하다고 解釋되고잇다 一九三〇年에서 一九三七年까지의 七年間에 米國政府 特許局이 日本으로부터의 出願에對하여 許한 特許權은每年平均七件인바 日本政府가 米國으로부터의 出願者에 許與한特許權數는 三百七件에 達하여 이點에 잇서서는 米國側이非常한 恩惠를입고 잇는것이다

小林大佐等英靈凱旋

【門司電話同盟】包頭作戰에名譽의戰死를한 小林一男騎兵大佐(東京出身)山西 山西輜重兵中佐(福岡縣鞍田町出身)以下의英靈三十餘柱는 三十日朝 天津으로부터 門司港湾의 東亞海運長安丸으로 故國에無言의凱旋을하고 椎木中佐以下竹田、重松部隊의 英靈은 門司上陸, 原隊에 小林大佐以下는 同船으로神戶로向하엿다

人事・集會

◇伊藤泰吉氏(總督府警務課長) 國境警備狀況視察次咸北地方出張中 一日朝歸任豫定

八面鋒

◇對日禁輸案을 中心로 米上院委員會 日米外交關係를 審議.
◇날을 괴로피라는 사람은自己부터 괴로웁것을 覺悟해야한다.
◇멀리 떠러진 大陸에서 蘇聯、獨逸、日本等에 號令하마디로 접근할줄 아는가.
◇財政、經濟政策은 全部前內閣의 方針을 踏襲하리라고.
◇事變處理도 對內方針도 同一하니 手腕의如何가 問題.
◇來明日이 議會 開會日、米內內閣의 政治的 試金石.
◇酷寒으로 交通事故、火災等頻發.
◇特別한 對策이 必要.

子宮病(자궁병) 月経不順(월경불순)
子姙症(불임증) 赤白帶下(적백대하)
삼 三 성 省 조 調 혈 血 정 精

월경불순(月經不順)자궁병(子宮病)가튼부인병이잇스면 귀여운애기를못낫든지 이로인하여 여러가지병이발생하는것이니조고마한이상(異常)이생기더라도삼성조혈정을 복용하고곳치도록하라

삼성조혈정효능
아해못낫는데(不姙症)월경이고릅지못한데(月經不順)여러가지자궁병(子宮病諸症)월경이넘어만이나는데(月經過多)적대하(赤帶下)백대하(白帶下)냉증(冷症)요통(腰痛)에 특효가잇습니다

包裝及價格 二五瓦入 ... 五〇瓦入 ...

醫學博士 申弼浩先生推獎

鮮滿支各有名藥房에서販賣함
總發賣元 三省聯合新藥研究所
京城府貫鐵町一六一 振替京城二三九三 電話光化門二八一一
出張所 奉天浪速通三七 北京西四北武王侯七號

ニキビ・ソバカスに
レポスキン

여드름으로 困難밧는분

여드럼나는 여러가지原因이잇는데 이것의根本인顏面皮膚의調節을안코는좀처럼낫지를안는것이아닙니다 레포스킨은 여드름은勿論 쇠버짐, 무좀等의吹出物에까지도 평장한效果가잇서서 본바탕으로부터 곱게나서가므로 皮膚의에리와 美顏이한꺼번에됩니다

잔주름과 잔티업새는데

잔주름과 잔티는皮膚의疲勞와生活力의缺乏에依해서되는것이므로 얼골의生活力의回復에效果가잇고顏面을매끄럽고아름답게하는레포스킨에依해서비로소에러이업게됨니다

죽은깨나는분은

죽은깨는皮膚下面의메라닌에依하는것이라고 學者들이말하고잇는데要컨대皮下及顏面의活動이나빠진까닭입니다 레포스킨은顏面의活力을旺盛케하고皮下의榮養까지圓滑케해서 分解消散하는理想的美顏藥用크림으로서三輪博士의苦心完成한것입니다(各地藥店에잇스나品切時는本舖로申込을乞함)

本舖 東京市駒込千駄木町 キンシ化學研究所 名古屋市中川區八熊町

三輪博士創製・藥用クリーム

京南支局 電話④一三〇二番

不老長壽・强精回春・更少主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百補丸會社

參首强壯水
補 陰 補 陽

高貴한芳香! 獨特한味覺! 神秘한藥効!

「良藥이苦於口」라는從來의觀念을打破하고 芳香과味覺과 醫藥的三拍子를完備한理想的藥茸新製劑를이世代의우리들에게보냅니다

本劑를服하면 身의健康에何等의寄與가업는 珈琲나 紅茶의飮用을斷然廢止하시고 味覺의滿足은勿論 二鳥의效果가잇는本劑의愛用을勸합니다(本劑五〇〇瓦入壹瓶이면參茸茶五〇〇杯以上이남으로價格에잇어서도珈琲나紅茶보다低廉합니다)

定價 二五〇瓦 參圓 五〇〇瓦 五圓

製造元 京城府鍾路町一七九 天一製藥株式會社 振替京城二九〇番

鐵道局電信科(官費生)生徒募集

募集人員 四十名
應募資格 ...
京城鐵道局

三四月春窮期突破에 官民一致邁進하자!

對策의圓滑進捗與否를實際調査次

南總督第一線에出動

삼십일남총독은 정례국장회의(定例局長會議)석상에서 삼사월의춘궁기(春窮期)를 앞두고 작년한재로인한 식량대책이 [illegible]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계획대로 [illegible] 총독자신도 선두에서서 제일선을시찰하겟다는 결의를 표명하엿다는것은 주목할만한일이다 이제 총독이 국장회의에서 발언한내용을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작년에 반도는대한재의영향을 [illegible]

南總督災地視察

二月下旬出發豫定

춘궁기를압두고 한재지의 실정에 나가서시찰할 [illegible] (사진은 남총독)

電車踏捕陝天

殺人

부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이 [illegible]

桃花町、元町에小火

[illegible]

滿洲雜穀不日入荷

"關東軍의支援으로百萬石이오게되엇다고"

湯村農林局長、春窮期突破의自信을言明

탕촌농림국장(湯村農林局長)은 [illegible]

道內婦人團體

精神座談會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련맹에서는 [illegible]

旱害地의免稅額

地稅總額의三割以上

財務局、四百二十萬一千圓의免稅額査定完了

한해지의 지세면제액(地稅免除額)은 [illegible]

事變國債好績

往十里土幕村

十一棟燒失

독안의쥐!

백화점에서물건훔치고

이틀동안이나숨고잡혀

[illegible]

天主敎堂에棄兒

[illegible]

木炭饑饉緩和

江原道等地에서廿五萬俵入荷

서울은 한동안 숫이 가난 [illegible]

漢藥品의投機化排擊

京城에統制組合、地方에輸移出入配給組合을設置하여

當局、全面的需給調整

조선의 한약은 오래역사를 가지고 조선인의 의료에 사용 [illegible]

京畿道聯盟主催

傷痍軍人修養會

[illegible]

旱害救濟費追加豫算

總額二千九百餘萬圓大藏省通過

[illegible]

暴利取締令=

適用措置

總督府各道通牒內容

총독부에서는 개정된폭리취체 [illegible]

經警、物價調整兩課新設

來月初에官制公布

二百餘名職員도同時에配置

[illegible]

陸軍省高等官一同

旱害地에義捐

總監에게四千八百圓付送

[illegible]

"電氣文明"도"남의말"

아직까지남포불켜는어두운驛이만타

전기문명이 [illegible]

山淸에또大火

梁山通度寺에는山火

[illegible]

福井서도雪崩

三十名生埋

[illegible]

慶北痘患續發

大邱와安東邑各一名

[illegible]

志願兵講演會

[illegible]

賭博團捕盡

[illegible]

金玉三초

動亂의渦中에싸힌

歐洲스포ー츠界

[illegible]

本社主催 第六回 全朝鮮女子氷上大會

申請明日限 所屬、部別、代名、參加種目을明記하여 三十一日午後四時까지 朝鮮日報社運動部로

兩文理大에

體育學科를設置

[illegible]

汽船衝突

[illegible]

抱川安城에痘魔

[illegible]

學生스포ー츠의分野確立

[illegible]

今夜의라디오

[illegible]

隨筆

[illegible]

強性強精藥 早漏 淋疾梅毒藥 五積六聚 無効返金 商報進呈 간질 문둥病 滿蒙特産物商會

감기로인한두통에 테-리-ン 發賣元 京城 新井藥房

두통이끈났는 테-리-ン 本舖 東京 中村信治商店

朝鮮作家名作全集 最新書式大全 ¥300 六法全書 ¥480 永昌書館

剤効特服內淋治 チ-ユ-サイド G-U-CIDE 本位 效果

補血·強壯·強精·特効剤 파로그린 (花鹿茸精血) 共生藥業株式會社

治腫靈藥 三仙膏 京城本町樂園 共生藥業株式會社

洪命憙先生著 林巨正 火賊篇(上)(第三卷) 方今大發賣中!

오케레코드 金貞九傑作集 張世貞傑作集 안개낀上海 코스모스嘆息 울고넘는旅館房 (OKEH)

魔島カリビアン 31日封切 黃金座

海援隊 原作·和田勝一 監督·辻吉郎 主演 嵐寬壽郎·月形龍之介 市川春代·大倉千代子

思索하는女性

全國女流美術家協會(米國)第五十回展覽會에 出品된 彫刻中 이番展의 作品은 그中에서「안나·하이앗트·헌팅튼」의(三尺)彫刻第一席을 獲得한「思索하는女性」이다

學藝

古代詩歌의美

古歌今釋(二篇)

—麗謠評注의一節—

梁柱東

古歌의 美는 解說할것이 아니라 그저 涵泳할것이오, 그의妙는 分析할것이아니라 다만 吟味할것이다. 그 素朴하고 簡潔하고 구수하고 애처럽고, 그러고도 隱約하고 含蓄이 잇고, 따라서 無限한 意趣와 아스러한 滋味가 잇는 우리의古歌를 무슨修辭와 어떠한 方式으로써評釋할수 잇스랴.

이제 編輯先生의 依囑에依하여 若干의 古歌를 解說하려할새, 무엇보다도 區區한 近人의 膚說이 古歌의 崇嚴한 境界와 素樸한面目을 도로혀 흐릴까 두려워하여 처음 上代는 다음 機會로 미루고 이번에는 于先麗代歌謠中에도 至極簡單하고 至極容易한다음 二篇의 短章을 試驗하여 보기로 하엿다.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잇고
ㅂ리고 가시리 잇고
날러는 엇디 살라하고
ㅂ리고 가시리 잇고
잡사와 두어리 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셜온님 보내옵노니
가시는듯 도셔 오쇼서

別離를 題材로한 詩歌가 古今東西에 무릇그얼마리오마는 이「가시리」一篇 通篇六十六字 二十數語의

(素朴) 味와 含蓄美, 그 切切한 哀怨, 그 纏綿한 情恨, 아울러 그 句法 그 章法을 따를만한 노래가 어디 잇스뇨. 後人은 부질업시 多辭와 技巧와 華麗와 綺語로써 或은 數千篇, 或은 數百行을 느러노하 제가의 一片의 情恨을 敍하려하되 하나도 이 一篇의 意趣에서 더함이 업고 오히려 이 數行의 表面을 못미침이 만흐니 本歌야말로 東西文學의 別離章의 壓卷이 아니랴. 江淹의 別賦는 [illegible]

가시리 가시리잇고
ㅂ리고 가시리잇고

首句는 斗然히 落淚를 이르켜 離別을 直寫하엿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넘은 처자가시리잇고, 이나를 바리고 넘은 기어코 가시리잇고」 句有의 돌뚝突兀함이 千仞의 斷崖와 갓고 의 이어 急迫한 一條의 急流를 聯想케한다.

(行文) 그러나 그突兀, 急迫함에 당하여 그것은 念迫한 表現以前의 기나긴 사연이 省略되어 잇는뇨. 처음 가신단말을 들엇슬때엔 그것이 오히려 弄談인양 혹시 나를 울려보려는 짐짓으로만 생각하엿더니 급기야 그것이 참인줄을 알앗을때 또엄마나 넘께기나 하소연하엿던고. 그러나 그것도 지금엔 모두다 쓸데업는말 청작 넘이 떠나시는 마당에 다시 무슨 경황으로 어제날의 기나긴 사연을 되푸리할쏘냐. 一切의 張皇한 辭說은 지금에 모두 쓸데업는 念迫한 (感情)

[illegible]

와 一切의 잔생각을 拒否하고 닷자곳자로 怨詞로 突進할밧게 업는것이다.

그러나 怨詞는 怨詞이면서 歌意는 스스로 哀訴와 含蓄을 가젓스니 「가시리 가시리잇고」는 或아주도 疑訝하는辭 或상지도 斷念치못하는辭로 一樣文字裏에 數種의 情趣가 아울러 隱現될은 細密히 吟味하라, 某種의 化學的 物質의 液으로 쫏文字는 紙面을 흐에 조잇대로 다 보는 바로 이 本歌의 首聯은 바로이 秘法을 갓초엇으로 妙處는 저「가시리」三字의 反覆과「리잇고」「助詞의 悠遠悽絶한 韻律的 情調에 잇는것이 아닐까.

날러는 엇디 살라하고
ㅂ리고 가시리잇고

二聯은 承이다 대개 懇切한 생각과 至極한 情念은 스스로 纏綿한 一節로써 完全히 끗나지 못하는 法이니 이른바 波後에 波紋이 잇고 激動은 餘震을 짝함이 이것이다. 前節의 哀怨이 本節에서 다시 添加的으로 敷衍된은 [illegible]

(曲盡) 한과 行文의 周到를 爲한 새聲 컨댄 斷腸가 와 祖宗되도한 餘勢가 잇고 長瀨이 나려지되 스스로 深思을 이룸 과갓다. 「님은 가시면 가는곳마다 흑 慰安도 잇고 흑 즐거움도 取하리만 이 나는 님 업스면 [illegible]

[illegible]

學藝안테나

法政模擬裁判劇

三十日부터二日間

京城法政學校에서는 同校學生會主催로 三十、三十一日의 兩日間 밤 일곱시부터 府內府民館에서 第二回模擬裁判劇을 上演하기로 되엇다는바 演題는「때의 判定」(一幕二場)과「殺第四」(二幕五場)로서 會費는 二十錢이라한다.

山居閑題 ①

…續·宮村記…

李無影

李書房과 時計

「李書房이 時計를 삿당이」— 이런 所聞이 삼시간에 온洞中에 퍼다하니 콩닷당 아무개네 집에서는 며칠째 끼니를 못끄렷고 또 아무개집 며누리는 부엌에 드러간 닭을 쫏다가 꽃치시를 깨고 또 누구네 아이는 어름판에서 팽이를 돌리다고 신발을 빨렷고 이러한 些少한일까지가 그대로 굉장한「뉴-스價値」를 가지고 洞中에 퍼지는 이 山村에 잇서서 李書房이 時計를 삿다는것은 떠들만한 큰事件이 아닐수업섯다. 그러나 李書房이 時計한개를 산事件이 그나지 아니고 며칠을 [illegible]

婦女들만이 아니라 男子들에까지 話題가 되엇는 貴로 그만한 原因이 업는것도 아니다. 李書房은 장퉁이아들兄弟를 두고 시작해서 六男妹에 自己네 夫婦까지 너면 일곱명이나 되는 大家族이나 그는 오직 두딸식이의 小作人이오 菜田으로 손바닥만한 밧 한때기를 (그나마도 小作이다)가진 집이다. 두딸지기의 小作人으로 일곱이나되는 食口를 延命하기 어려우리라는것은 明하도 다 아는일이다.

—그 李書房이 大金十六圓을 던지어 (月賦이기는하지만) 懷中時計를 삿것이다. 그러나 時計를 산事件이라 먼저 不幸을 말해야만 그의 안해였다. 안해나 洞里사람들의 말에도 時計를 삿다고 嘲笑하는 그의 어제던 이 그러한 시계가 一理가 잇는바는 아니다. 여 時計를 찬 사람이 山村에 잇다는것은 一大事件에 틀림이업다.

「제장 어련녠 살림이를 다 내노쿠 다니는데 時計만차구 당기면 제엔가?」

그러나 李書房의 持論에도 一理가 업는것은 아니다. 사람은 時間生活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時間觀念이업스면 每事에 支障이잇고 사람이 헐개가 업다는것이다. 그리고 事實에잇서서 李書房은 時間生活을 하게되엇고 또 時間觀念을 가질必要가 생기기도 햇든것이다.

—그는 徵路 고후(工夫)로 就職이된것이다. 宮村에서 驛에까지는 二十分이나 걸려 고「고혼」의 出勤時間을 一定해기때문이다 그러나 또그 日給八十錢까지의 「日雇勞働者의身分」으로서 現金으로도아니고 月賦까지 時計를 삿다고 嘲笑하는 그의

다. 洞里사람들은 길에서 만나기만 해도

「지금 멧시나 됏소?」하고 못는다. 李書房에게는 時間을 물어주는것이 그지업시 고맙다. 洞民들이 時間觀念을 갓게 되엿다니보다도 時計를 자랑할 機會가 주어지는것이다. 그러나 李書房의 臨時處다. 三個月만에 解雇가 되자 그의 時計는 完全히 洞有가 되고 말엇다. 하로에 열번 만나도 時間는 못고 또그는 기빼서 내보인다.

「허 벌서 이러캐나 됏나?」세시 二十分 半이군」

누가 지어내말이지는 모르나 李書房이 하로에 時計를 보는回數가 無慮百回는 된다는 이야기가 떠돌앗스나 그것은 지어낸말이라 하드라도 그의 안해가 하는말에는 別로 誇張이 업는것이다.

「글세 좀 봐요 오든 밤중에 자다가 깨면 불을켜고는 時計를보고 깨기도 시작때부터 해가지 몇번이나 時計를 꺼내보는지 [illegible]

내놓고는 「벌서 이러캐 됏네니!」「글세 이러답니다요!」 午後四五時頃이 면 十餘次 라면 就寢時間을 除하고 도 三十回를 時計를 꺼내본다는것은 定히미들만한 數字일것이다.

그는 낫동고 「字도 모르는안해와 아들들을 더리고 가 펏하면 이러캐 못는다고 한다.

「지금이 멧時가. 됏을상 노? 나?」

勿論 알리가 업다.

「사람이 時間가는 줄만은 알구살아야 하는게다. 저런 너 머네라구 답답해서 살수가잇 나!」

오食口가 끼니를 못고리 고 아이들이 허기가져서 눈이 퀭해도 그는 時計만은 팔 생각을 안코 다. 自然家族이 時計가 밉게 생겻다. 자다가 말고도 (고혼도 벌서 아니것 마는) 벌덕일어나서 성냥을켜 고時計를 보는것이 하로밤에 도 몇번인지, 그 三째에 도 수일동 까지 가는 二十分 동안에

五六次 時計를 꺼내보는 것은 나도 보러라 그의 안해나 洞民들의 말이 반드시 지어 낸말이라고는 생각할수업다.

「李書房은 기운두 세우. 돼 지 세마리를 차구 어떠캐그 러캐 잘 것소?」

同行하던 金敎知가 이러케 하로를 하기에 도야지세마리의 緣 由를 몰으니 지난洞會人날 二 十餘名이 모힌 席上에서 난 도야지세마리를차고 다닌다고 자랑을 햇다한다. 도야지가 웬 거냐고 하기에 그는 축기주머 니에서 時計를 내보이며 이러 케 말햇다는것이다.

「이게 十六圓 짜리니 도야지 세끼 세마리갑시 아니오!」

그러나 요새 드르니 李書房 은 할수 업서지 그 貴重한 時計 를 水原邑에가서 二圓五十錢 에 잡히엇다고한다. 하루라도 빨리 李書房이 그時計를 찾 게되기를 나는 衷心으로 빌고 잇다.

俗談(上)

書齋餘聞

金思燁

辭典編纂

至今부터 六年前 아직 一般이 研究室에잇슬때 城大朝鮮語文學硏究室에서는 가장隆盛을 極하던때엿다. 研究室에는 언제나 一簑兄을中心으로 和氣靄靄히 各自의 文學論에 陶醉하엿고 그들의 눈은 늘푸르고 빗나 새로웟섯다.

그리고 休暇가 되면 우리는 民謠蒐集次로 各地를 돌다 단여섯다. 이 結果로 우리는 約二千餘首에 가까운民謠를 採集하였다.

이가치 硏究室內에서는 所謂 「純朝鮮文學」의 硏究熱이 彭湃 하여슬때 내一個人으로서는 또 한가지 다른角度의 着目이 잇섯스니 俚諺蒐集에 對한 關心이 이엇섯다.

처음에는 漠然히 日常談話中 相對의 口頭에 오르나리는 俚諺을「노-트」해서 그새로 움을 혼자 즐기고 잇는내가 俚諺興을 만드러보자는 生覺을 내고 그것을 本格的으로 着手하기까지에는 勿論一簑兄이 助言 引導함에 비롯하엿다.

그後우리두사람은 瀰滿한 野心을 품고 小心하여 蒐集에 熱中하는 一方, 旣集된것을 카-드 에다가 記錄分類하여 辭

理도하고 同時에 參考文獻의 探索에도 腐心하엿섯다.

大抵俚諺辭典의 編纂에는 口頭에 오르나리는 俚諺은 勿論이요 古今의 群籍을 涉獵하여 文學의 恒河沙中에서 俚諺의 眞珠를 가려내지 안으면 안되나니 이것을 實行함에는 不測의 難關이 가로노여잇다 假令 古文에 가장 膾炙되는 小說類中에는 그當時의 俚諺을 探錄蒐集되어 잇슬뿐아니라 雲中의 佳句 妙語는 往往히 世人에게 截斷取用되어 恰似本來의 俚諺인것가치 使用되기도 하고 或은 漸次語句를 變更하여 俚諺으로 使用하기에 便利케하기위한 남어지 一見그本來 出處를 辨知하기 어려울만큼 變貌를 變한 이른것도 잇다.

우리는 蒐集이 웬만큼 整備되엇슬때 새로운것을 엇기도하고 諺의 地方的 變遷如何를 살피고 이하여 約二週日間 南朝鮮多島海一帶를 돌아다니면서 探

庚辰史話

三大罪人의亡命

(二)

黃義敦

(三) 셋째로는 賢良科의 創設이다. 在來엔 人材를 뽑아 文과 武에서 뽑았고 文科의 出身이 勢力을 잇스되 오직 文科와 武科엔 武科엔 時賦의 詭弊, 武科엔 馬와 武經이 唯一한 試取科目이오 그의 資格과 性行은 全然히 考査치 안하엿스므로 一般有志者中에서는 이것도 그를 改革치 안하여서는 안되겟다 생각하던바이다. 그러므로 改革에 專力하는 그들의 눈은 또 한이 方面에 注視하엿던 것이다. 그래서 戊寅三月十一日에 趙光祖李耔等이「漢의賢良方正科」에 本받어 널리 才行의 士를 薦擧한 後에 다시 策問으로써 試取하자 主張하엿다. 例와 가치 鄭光弼 張順孫 南袞等 保守派의 反對가 잇섯스나 改革派의 主張이 猛烈하엿고 또 中宗의 諒解가 잇섯스므로 마침내 賢良科의 制度가 創設되어섯다. 그래서 同年六月에 그의 制度를 詳定發表하엿고 十二月에 第一着으로도 中外의 薦擧人 百二十名의 推薦狀을 總督에 모앗섯고 이듬해 己卯四月十三日에 勤政殿에서 親試하야 金湜 趙柏等二十八人을 選拔하여 重用하엿스므로 이를 薦擧科 또는 賢良科라 이름하엿다가 이가 곳 그네의 改革案中에 第一 큰 問題인 同時에 明調로 成功이 되엇슴은 참으로 慶賀할 만한바이다.

(四) 넷째로는 卜相法의 改定이니 在來로 領左右三相中에 한자리가 비엇을때엔 現任或原任大臣이 協議하여 可堪者數三人을 推薦하면 임금은 그中에서 任意로 一人에게 落點하여 任命하는 法이엇스나 趙光祖等은 重大한 國政을 運轉하는 宰相의 推薦權을 少數의 現原任大臣에게만 맛기는것이 不可하다하여 戊寅正月四日에

「政丞은 領議의 法에 依치말고 廷臣에게 遍問하여 德望이 顯世한 者를 擇定하자」

하더니 마침내 그네의 主張이 通過되어서 同年三月五日에 中宗께서 議政府、大司憲、漢城府尹、弘文館으로 하여금 協議하여 卜相케하라 命하셧스나 領相鄭光弼 左相申用漑의 不平과 反對로부터 그가 中止되고 말앗섯다. 그네의 主張한 여러가지 改新條件中에도 가장 貴重한이 問題가 鄭申兩相의 利己的 反對로 實行되지 못하엿슴은 참으로 遺憾인 同時에 어째서 그가 한 一步를 나가서 國民投票의 選擧制를 主張치 못하엿던가함이 가장 遺憾되는바이다.

(五) 다섯째로는 丁丑七月에 咸陽儒生 金紹의 上疏로 發端하여 地方自治制라할만한 呂氏鄕約을 入道에 施行케되어섯다. 그네의 鄕約을 實行한지 一週年後에 至하여 有終하였으나 民風이 膨大하므로 守令의 勢力과 相互 衝突을 빚어 中宗實錄 戊寅九月十四日條에 씌워 잇는것을 보면

「敎化에 有益한點이 잇스나 反면 하여 이로써 弊端이 업지 아니치 안타」하야 鄕約兩相의 意見과 紛爭의 端이 되엿다. 그러나 이는다 그專制壓迫時代에서 도 一條의 光明인 自由平等의 曙光이 비친바로 볼수잇슴만한 同時에 以上의 諸點은 다그네의 改革案中 良好한 長點이라 할만한바이다.

「2」趙光祖의改革運動의短點

(一) 첫째로는 情的 方面을 無視하고 오직 意志方面만 尊重히 아는 儒敎道德的 見地에서 오래 동안 傳하여오던 女樂 곳 女子 音樂隊를 革罷하자 主張하엿섯

다. 그들 實行한지 一週年後에 [illegible]

入學案內

學校名	募集人員	考査期日	試驗日
梨花女高	一〇〇	二月五日	三月十一日
淑明女高	一〇〇	二月十五日	三月廿一日
仁川女高	一〇〇	二月十五日	三月廿一日
金泉中	一〇〇	二月一日	三月廿六日
淸州高女	一五〇	十月二日	三月廿六日

詩壇金屑

佔畢齋의華鋒(上)

滄東散人

金佔畢齋宗直은 善山人이라 그總角時로부터 이미詩에能하여 名이 노팟섯는데 世祖己卯에 文科에올랏는데 魚世謙이 그詩를보고 嘆賞하여 말하되 나로하여금 채찍을잡고 奴隸가 되라하더라도 甘心하여밧겟다 하엿섯다. 그端懿한操行과 精深한學問과 高古한文章은 一時의 儒宗이 되어섯다 當世에 知名한人士가 만히그門下에서 낫는데 金宏弼、鄭汝昌은 道德으로써 올리고 金馹孫、俞好仁、曹偉、李宗準、南孝溫、洪裕孫은 文章으로써 顯著하고 그 外에도 政治와 事業으로 成名한者가 만히 잇섯다.

佔畢齋가 지은吊義帝文이 잇서 그文章이 雄健慷慨하여 이는데 그 文이 戊午史禍가 일어난 張本이 되어섯다. 丁丑十月 余自密城 道京師 宿踏溪驛 夢有神 被七章之服 欣然而來 自言楚懷王孫心 爲西楚霸王所弑 沈之郴江 因忽不見 余覺之 愕然曰 懷王南楚之人也 余則東夷之人也 地之相去不啻萬餘里 而世之先後 亦千有餘載 來感于夢寐 玆何祥也 且考之史 無投江之語 豈羽使人密擊而投其屍於水歟 是未可知也 遂爲文以吊之 歲曰 惟天賦物則以予人兮 孰不知其爲尊四大與五常 匪華豐而賓 夷兮 曷古有而今亡 故吾夷人後千祀兮 恭吊楚之懷王 昔祖龍之弄牙角兮 四海之波殷爲衁 雖鱣鮪鰍鯢曷自保兮 思網漏而營營 時六國之遺祚兮 沈淪播越僅媲夫編氓 梁也南國之將種兮 踵魚狐而起事 求得王而從民望兮 存熊繹於不祀 握乾符而面陽兮 天下固無大於芊氏 遣長者而入關兮 亦有足覩其仁義 羊狼貪狼擅夷冠軍兮 胡不收而膏諸斧 嗚呼 勢有大不然者 兮 吾於王而益懼 爲醢腊於反噬兮 果天運之蹶蹶 郴之山磝以觸天兮 景晻曖而向晏 郴之水流以日夜兮 波淫泆而不返 天長地久恨其可旣兮 魂至今猶飄蕩 余之心貫于金

[illegible]

一等當選戲曲 (朝鮮日報懸賞) (3)

海燕(全一幕)

咸世德 作

裝置 鄭玄雄

演出 劇圓高協

스럽…

鷗가 가볍게 檣頭를 넘 어서 멀리 사라지는 소리 나 이윽고 나루스배 하적이 나 타난다

沙工 윤척지 출솜 밧게

沙工 (출렁)던지고 밧다리를 걸 친다 尹僉知 출끄를 바위에 맨다 沙工과 安醫師 내려온 다 珍淑 숫을 집어들고 쏜 살가치 층층대로 올라간다.

安醫師 바다스물은 밤흘잇나요?

沙工 몸이 원체 귀해서요.

아적은 밍물로 하지요 (尹僉知를 보고)제밀(濟物浦)서 오 신양반이십세.

尹僉知 (황송하여)누구신데?

沙工 쇠통이가 동아人배에서돗 들고 희닐려갓슬때 갈비뼈다 치구 입원햇던 병원잇지?

尹僉知 그래!

沙工 바루그병원 선생님이셔

安醫師 무슨일로요?

尹僉知 (말을 이어) 아마 두셧다지요

安醫師 그런 양반이 등대지길 웨 하여요?

尹僉知 네!

安醫師 교장요?

尹僉知 아 보통학교 교장까지 햇스면 구만이지 더해요?

安醫師 그럼 주임영감도 한식 이 만흐문이시군요?

沙工 가 기다리슈

沙工 네!

…등대지기 나루人배로 내려간다

尹僉知도 눈치를채고 만놀은 짐을 추섬추섬 집어들고 뭇 층대로 올라간다

安醫師 (尹僉知에게) 주임영감 게슈?

尹僉知 등대깐에 들어가섯는데 부랄 (分銅)이 좀 고장이나 서밤욤

沙工 영감님한테 할말이 잇다 구 우정 오섯다네

尹僉知 (燈臺를 향하여)진숙아 진숙아

珍淑 (燈門아페 나타나며) 웨 그루?

尹僉知 들어가 아버지한테 손 님 오섯다구 여쭤라

珍淑 쇠문안으로 들어간다

安醫師 지금 그녀자가 등대주 임 딸이오?

尹僉知 네

安醫師 학교 어듸 댕겻나요?

尹僉知 학구 보통학업 마쳣지 요?

安醫師 그러두 중학교 졸업햇단 너 절한 시처기집애들은 명함두 못되죠?

尹僉知 그러케 재주가 조가요

安醫師 아 일본말두 동대일기

尹僉知 몰르지용 아무한테두 말 안하시구 아까그말한테두 얘기만은 안하시니까용

沙工 참이상한 양반이에용 산 속에서 도토리죽만 먹구도 다 는도사처럼 아주 세상하구담 싸셧서용

安醫師 그러케꾸에두 요질쩍업 겟군요?

尹僉知 한달에 한번씩은 월급 타러 해사짜에 가시지요

安醫師 양식이나 나무는 어떠 카구요?

尹僉知 경비선이 빳빳 기사대 다구 한달에 두번씩 실어다 줍지요

沙工 어디 연이사람이야 등대 지길 시키나요? 조선사람등 대지긴 경기도에 그양반 한 분이에요 그래두 다 이력이 잇스니까 해사짜에서두 그양반 한테만은 꽉혼드시 공대를하죠

燈臺지기 그럼 [illegible]

[illegible]

燈臺지기 (尹僉知에게) 아 웨 올라오지 안아?

安醫師 편안합니다.

燈臺지기 (나루人배로 내려오며) 오래 기다리셧슴니다.

安醫師 바쁘신데 실례합니다.

燈臺지기 (安醫師를 꺼내주며) 안신것이라 구 한니다

安醫師 (지금까지의 떠떠이 여 情한 態度로) 들오시면 불쾌 하실 말씀은 엿수며 왓는데 이라구 휘 아닙는지요?

安醫師 (緊張하여 人으로)저 서 실례입니다

燈臺지기 첨 못드는 일을입니다.

安醫師 여기 자주 왓스니까 아 치구 밥해먹는다든 학생이지 뭐여요?

燈臺지기 (그제야 비로소) 아 그학생! 네! 압니다. 갑금 나루를 건너와선 등대를 그 리기두 하구 소라, 고동을잡 기두하구…햇지요

安醫師 그애가 바루 제자식입 니다

燈臺지기 그러세요?

安醫師 (沙工에게)영감은 배에 가 기다리슈

沙工 네!

燈臺지기 몸이 실하지못해 종 무곽과 수양한다는데 요새 얘 교 잘다님니까?

安醫師 개학한지 벌서 달포가 넘두록 학교에 잇습니다.

燈臺지기 그럼그저 섬치가 안 흐가용

安醫師 제작업이 의사라 의술 은 할아몸 다해밧구 또 제 친구를 한테두 일일이 한번 씩 진찰을 바더봣스나 이구 동성으로 병이업다구들합니다

燈臺지기 병이 업는데 학을 아갈리가 잇슬가요?

安醫師 제가 여기오게 사실은 그것때문입니다.

燈臺지기 (不安한 가운데)그일때 문에요?

安醫師 댁에 따님이 게시죠?

燈臺지기 네! 우리애하구 무 슨관게가잇서서 그러십니까?

安醫師 수일전에 그놈이 잠든 틈을타서 책상서랍을 뒤저봣 지요 그랫드니 지가 섬에서 천막생활 하든때의 일기책과 근방경치를 사생한 그림책이 나와섯습니다.

燈臺지기(探索하는듯)거기에 내 딸얘기가 적혀잇섯단 말씀입 니까?

安醫師 (當然이) 네!

燈臺지기 그럴리가 잇습니까?

安醫師 사실이 증명하는걸 어 떠케 합니까?

燈臺지기 이섬엔 여름철에 항 구서 손님들이 만히들 놀러 옴니다. 그래서 언젠가 학생 이 와서 등대구경을 좀 구 경하겟다기에 내딸더러 안내 를 해주란적은 잇섯지요.

安醫師 그러케 단순한게 아닙 니다.

燈臺지기 (若間氣分을 損傷당한 듯) 그러치만 일기에 내딸애 기가 씨엇다구 그설가지구를 의사이를 단정할순 업지안을 가요?

安醫師 나두 그만때의 경험이 잇습니다. 그래서 먼발체로바 라본녀자를 그리워하고 동경 하는것에 지나지 안는가햇섯 습니다만 한장 한장 넘겨갈 수록 더 의심할 여지가 업 게됏습니다.

(가방속에서 日記冊과「스켓취 북」을꺼내 稍稍이 내밀며)보 십쇼

燈臺지기 (그림장을 넘기며 呻吟 하듯)내딸입니다 내딸입니다

安醫師 저어도 처녀가 남자아 페 안저서자기얼골과 몸을그 리게 할때 그들사이가 이만 저만 기뿐것이 아니라는건두 구든지 추측할수 잇습니다

燈臺지기 그러치요!

沈影의燈台지기…… 朱仁奎의安醫師·金承泰의尹僉知

寒波와 거친皮膚豫防

北海上의 寒風이 떠다니는 이 寒波가 皮膚에 미치는 影響은 적지 안습니다. 몸부터 動物가 어려웟든지 희모라처오는 寒波가 皮膚를 거칠게 마다 水道물이 어려서나오지안 는때가 閉鎖됩니다.

추어주어하여도 暖房의 兵士들을 생각하면 송크리고드러안저 만잇슬수도업고 洗濯이나 부엌 일을하는데 찬물을안쓸수도 업 는것이므로 아무리 注意하드라도 먼저第一 손이거칠기 쉬워서러 지고 금이가기쉽습니다.

얼굴도 寒波의冷風을 쏘이게 되어서 아무리하여도 皮膚가까 칠까칠하고 사나워지기 쉬우 며 그리고 그러케될나이도아닌 데잔주름이 눈에띄우기쉽습니다 살이거츠러지는것을 防止하는데 는 皮膚에脂肪質의 潤澤한氣運 을 恒常가지도록하는것이 무엇 보다 第一입니다.

그러케하려면 집일을하고나거 든 반드시 마른타올과 가튼것으 로 깨끗이水分을 닥거내는것이

에 쪼이고말리던지하면은 누구 든지 반드시 皮膚가 거칠러집 니다.

水分을씻서내두에 레-도크림 을 발러두는것을 이저서는아니 됨니다 레-도크림에는 人體와 同質의 脂肪分이드러잇서서 皮 膚의 毛孔等으로 잘浸透하여서 新陳代謝를 旺盛하게하는 故로 살거치러지는것을 防止할뿐아니 라 한거름나아가 皮膚를아름답 게 젊어지게합니다.

얼굴의손질도 가튼理由로 外 出할때의 化粧바탕으로는 레- 도크림을 쓰시는것은 勿論이고 집안에서 粉을지우고 잠잘때라 도 레-도크림을 잇지안호시도 록하시는것이 第一緊要한 일이 며 그러케하시면 아무리무서운 寒波가 襲來하드라도 살거츠는 것을 防止할수잇습니다.

所重한粉을選擇하는法

겨울은 四圍의 風色이 쓸쓸하 고 素朴하기때문에 粉을 選擇하 는法이서툴르면 化粧이조금도덧 뵈지안흐니 잘 注意하시는것이第 一입니다.

먼저 알어두시야할것은 色調와 粉의 粒子는 이 몃가지를 細 心히 이를 이 몃에다 [illegible] 容器에 솟아서 選擇하시지말것 을 너무허여케 濃艶하게되는 粉은바 르시지 안홀것입니다.

製造上의 여러가지 理論과 經驗 가흔것은 하여튼 엠드러 논 놔뒤 가第一이지만 第一理想的인것은 얼굴의粉이 光線을 부드럽게吸 收하여 곱와임가상자리 鼻의線 等 딸은한感을주는粉이아니면아 니됨니다.

光線을 吸收하며는 어떠케하 여서 아름답게 보이는 가튼 의 粉 하자면 明令白光이 直射하는 미려서는 光線을 反射하여 번득 이며 단단하게 보이는것입니다 室內의 어디서드러오는지모를 光線이라해서는 陰影이 立體的가되

여서부드럽게보임니다 即그것과 가튼理由로 얼굴에粉을발랏슬때 에光線을吸收하여는 보는사람의 眼에부드럽게부드러처서 떠여름 달게느껴지는것입니다.

第一로얼굴에 多少조치안흔特 徵이잇는분은 그것이감추어지게 하고 얼굴全體가 떠立體的이며 뚜 렷하게보입니다 그리고 살이거 친분이나 잔주름이만흐분이더든 조금도그런것이보이지안코 결이 「하부다에」와 가치 곱게되는것 입니다.

이點에 着目하야 研究한 粉은 世界에도 그例가업지만 單 只 하나 레-도白粉만이 잘 이原理를 應用하여 光線吸 收의 粒子의 製造에 成功한것입 니다.

試驗상아 레-도白粉과 다른 粉에 바르면 比較하여 주십 시요.

災害對策과農業企業化

農業資本主義化의 推進力과 諸矛盾

③……鄭 和 濬

總督府農家經濟統計에 依據해보면 金融資本에 依한 이 兼併作用은 大體로 大正十年까지의 十年間에 終了되고 以來 不動狀態를 維持하고 잇슴을 알수잇다 그리고 이 期間에 農村의 資本主義的能力의 顯著한 減退에 對한 救濟策으로서의 自作農創設政策 朝鮮土地改良事業의 滿洲土地에의 再進出에 依한 資金回收等으로 因하여(農業所有者中에는 代金의 長期月賦償還條件으로 그 ……

土着小作人에 歸屬하는 現象도 잇섯다) 土地兼併은 오히려 緩和되는 傾向까지도 露呈하고 따라서 朝鮮農業의 大規模的企業化的要素는 더욱 減縮해진다.

다음에, 農業生產物의 商品化에 對하여 考察해보면 在來에는 朝鮮農業은 純然히 農村自體의 自給策으로서 耕作하여왓고 또 그 耕作은 主로 穀物에 集中하여왓든 것이니 그 重點이 多角的經營으로 轉換되어 果實 蔬菜 ……

革 桑蠶 養畜 煙草 棉 蔬菜等 외 生產이 擴增되고잇다 即商業的色彩를 띠고잇던 諸種農業物이 바야흐로 「純商業的」인 商品生產으로의 길을 밟고잇스며 또 主業物인 米穀까지도 거의 折半이 商品으로化하여 移出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其他 桑蠶、養豚乃至 菓蔬의 生產도 商品化에 拍車를 加하고잇는 事實은 結局 一方에 擴大한 經濟的 貨幣經濟部門에 「패닉」이 出現…

이러한 推移 中에 잇서서 朝鮮農業의 商業化的 趨勢를 把握할수 잇스나 農業經營의 純化에 拍車를 加하고잇는 事實은 結局 一方에 ……

…하는 生產傾向은 農村의 自給的 經濟에 決定的 影響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的 商品化는 반드시 企業化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업다. 例컨대 米는 朝鮮의 主要한 商品이 되어잇슴에도 不拘하고 그 生產의 主體가 小農的 零細經營이며 따라서 …… 小作人이 耕作하는 것이 ……

區分	自作	小作	自作兼小作	計
明治時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0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00

新施策運用方針

研究에着手한內容

物價調整課新設

京城商工會議所擴充

【東京電話】物價對策要子는新內閣最初의 政綱政策이므로 注目을 끌고잇는데 그項目은 모두 抽象的이며 各項目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어떠한것을 政府에서 考慮하고잇는지가 重要關心인데 今後具體的으로 研究에着手하려는 要點은 大要如左하다

物價政策

一、低物價政策은 堅持하나 반드시 九·一八價格停止令에 拘泥치안코 戰時適正價格의 急速한確立을期한다

一、戰時適正價格이라함은 平時適正價格이 生產原價에 利潤을 加한價格인데 對하여 利潤에 相當한 制限을加한 價格이라는 概念이다 따라서 戰時適正價格을 確立하려면 生產事業에 잇서서의 利潤의相當한 低下도 不得已하게될것이다

一、따라서 現行의 公定價格中에서 引上되는것도 잇슬것이며 引下될것도잇슬것이다

一、前內閣에서 決定한物價統制大綱은 參考하나 指導方針으로는 아니다

一、生活必需品의 補助金交付도 考慮한다

一、生活必需品의 補助金政策의 實際를 除去하기 爲하여 「物價調整資金制度」를 考慮한다 即 現在의가치 追加豫算에 依하여 미리 補助金交付를 決定하는方針은 交付바들 會社에서 미리 補助金을 事業計算에 繰入할과가튼 弊害가 잇슴으로 …

一、强制貯蓄을 實行한다하면 그方法은 事變前의 收入보다어 느程度以上으로 增加한 收入을 强制貯蓄케한다

一、米 石炭等의 生活必需品에 對해서는 國家管理도 硏究한다 品目의 性質을 考慮하여 最高의 國家管理인 專賣制度로 할는지 生產 配給 價格에 直接 命令하는方法에 依할지 或은 配給만을 國家管理로할는지 商品別로 研究한다 米에 對하여는 專賣制度도 研究中이다

一、强制貯蓄에 對하여는 現在의 自治的貯蓄을 妨害하는일이업는가를 愼重히 研究하엿스나 法第六條、第十二條等의 國家總動員法에 依하여 傳給價限等에 對하여 …

必需品인 砂糖、味噌、醬油、木炭과가튼 重要品에 對하여 傳票制度도 研究中이며 …… 傳票制度의 實施는 容易치안은데도 配給機構가 完備치안흐면 現在까지 … 中에 들어오지 안케될念慮가 잇스므로 配給制度의 改革이 前提가된다 右物資의 傳票制度는 大企業院에서 立案에 着手한다

消費規正策

一、消費節約의 强化外에 生活

一、一般的消費節約과 아울러 豫算의 壓縮에 對하여도 研究한다

重要商品對策

一、產業上 또는 生活上의 重要商品에 對해서는 特히 低物價政策을 堅持하는 同時에 供給의確保를 期한다

一、特히 生活必需品에 對해서는 絕對로 供給을 確保하고

通貨回收策

一、現行의 消費節約 貯蓄獎勵等을 다시强化하는外에 現行郵便年金과 가튼 年金貯蓄及保險制度에 新種類를 設하여 資金吸收를 圖謀하고 또保險에 對하여는 事業主의 保險金强制支拂에 依하여 現實的으로利潤制限의效果를내는수가잇다

京城商議의 明年度豫算總會는 二十七日에 開會하고 總額二十八萬圓의 膨脹豫算을 原案대로 可決하여 確定을 보앗다 그리고 明年度新規事業中 特記할物價調整에 對하여는 그費用으로서 人件費三萬九千圓을 計上하고 새로이 物價調整課를 新年度인 四月初에 新設하고 課長以下十二名의 係員을 配置하여 各品種別로 各專門家를擔任시켜 九·一八價格停止後의 公定或은 協定價格等의 適正價格의 決定에 對하여 行政官廳及業者側의 中間에잇서서 가장公正한 運營機關이될것을 期하는것이다

雜穀도買上決定

損失은國庫補償

總督府에서는 現下의食糧事情에 鑑하여 米買上에倂行하여 過剩雜穀의買上(又는各道管理)을斷行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右雜穀의買上에依한 損失、賣買損은 國庫로 補償하기로되엿다

豫算外國庫負擔

支出로損失補償

總督府에서는 米雜穀의買上에 對하여 右買上에伴하는 賣買損其他의費用으로 國庫로損失補償하기로決定하엿는데 右는豫算外國庫負擔으로서 支出할方針으로 決定하고 目下農林局에서는 財務局을通하여 大藏省에交涉을할 모양이다

生絲續落

低落一途를 거듭하는模樣

濱生絲市勢는 昨夜 後場當限의 暴落에 伴하여 今朝도一齊히 軟化되어 前場大引價先限은 又復 十六圓 暴落하여 千五圓五十五錢으로 低落되엿다

生活物資增產과

國力培養에邁進

朝鮮農會總會開催

朝鮮農會第三回通常總會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遞信事業會館에서開催하고 林會長以下評議員과 各道委員、總督府로부터 岸農林局長其他關係者 約五十名이 出席하여 劈頭 林會長의인사가잇고 日程에入하여 各議案에 對하여 入田理事로부터 說明이잇슨後 正午一旦休憩 午後도審議

（一）昭和十五年度朝鮮農會收支豫算의件
總額은 一百六十三萬八千六百三圓이어서 前年度에 比하면 一百四萬六千五百四十四圓의增額이다

（二）朝鮮農會經費分賦收入方法의件
從來에 第二分賦金은 道郡島會에對하여 收入의多少에 不拘하고 五十圓을 均一徵收하엿는데 이것을 是正하려는것이다

（三）朝鮮農會肥料配給特別會計收入支出豫算의件
收入支出은 二億四千八百七十四萬四千七百四十三圓 이어서 前年度에 比하여 一億七千七百十一萬 九千一百四十三圓의 增加를보게된것이다

（四）昭和十五年度 朝鮮農會畜牛再生共濟特別會計
總額三十八萬五千二百二十圓이어서 前年度에比하여 一千四百十圓의 增加이다

（五）昭和十五年度借入金의件
十個年年賦償還키로하고 肥料特別會計經費中 肥料配合所建設費에 充當키爲하여 昭和十五年度부터 十個年間에 亘하여 四……

（六）朝鮮農會職員及 遺族扶助規程制定의件

十七萬圓을 個人키로된것이다

（七）朝鮮農會畜牛再共濟準備金積立方法은 每年度畜牛再共濟收入掛金總額의百分의 十以內로積立키로함

（八）評議員補缺選擧의件

▲追加議案

（一）昭和十四年度 肥料配給特別會計收支豫算追加更正의件 立替金三千萬圓을 增加한것이다

（二）朝鮮農會乳用牛登錄規程制定의件 朝鮮內乳用牛의 優良한血統을 普及하고 形質과能力의 向上을 圖謀하기爲하여 本規程에 依하여 登錄을行하려는것이다

（三）朝鮮農會顧問推薦의件 石塚峻、上內彥策、松本誠、金季洙、閔奎植等五氏를 顧問으로推薦

▲承認案

（一）昭和十三年度朝鮮農會事業報告及收支決算承認의件 收入이 三十六萬三百九十一圓六十七錢이오 支出이卅五萬七千五百十三圓卅一錢으로 差引殘金二千八百七十八圓四十六錢을보엿섯다

（二）昭和十三年度朝鮮農會肥料配給特別會計事業報告及 收支決算承認의件 이것은收入에잇서서 十七萬四百五十二圓七十三錢이 減少되고 支出에잇서서 廿萬四千四十七圓九十四錢의減少를보이게 되엿다

（三）昭和十三年 朝鮮農會畜牛再共濟 特別會計事業報告及收支決算承認의件

收入은 三十五萬七千一百八十七圓七十五錢이오 支出은 二十九萬四千六百二十七圓七十八錢으로 殘額六萬二千五百五十九圓九十七錢을 翌年度에繰越하게된것이다

（四）昭和十四年度 朝鮮農會收支追加豫算(第一回)專決處分承認의件 滿洲向 輸出牛의 斡旋手數料와 諸費用을追加한것이다

製綿公定價

百斤七十六圓으로

改訂해달라고陳情

朝鮮內製綿公定價格은 昨年末에 百斤六十八圓으로 決定實施中인데 朝鮮製綿組合에서는 原料의 大部分인 陸地棉四等의 品質劣惡때문에 步留가나쁘겟과 混入雜이므로 七十六圓으로 改訂하여달라고 二十九日總督府商工課에 陳情하엿스므로 同課에서는目下 眞重調査研究中인데 結局多少의引上改訂이認定될모양이다

市俄古小麥市況

【市俄古商通】產地의天候良好를보고 低落되엇다

中央無盡에合倂

黃海福德 兩無盡도

三十日總會에서承認

朝鮮中央無盡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本社에서 第五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第五期諸決算案承認의件
二、同上利益金處分의件
三、當會社와 黃海無盡、福德無盡과의間에 締結한 合倂契約承認의件
四、前號合倂實行에 關한一切의 事項을 代表取締役에게 一任할件
五、定款變更件(資本金五百五十萬圓을 六百四十九萬九千五百圓으로 增資할것과 商法改正에 伴한改正)

을異議업시 可決하고

六、監査役四名任期滿了退任에 三名을 減員하여 河口鶴七氏만重任
七、元萬會社取締役佐佐木茂男氏

에게對한 慰勞金贈呈件 重役會에一任으로決定

利益金處分案은如左하다(單位圓)

▲當期純益金 三三、四五一 ▲前期繰越金 三三、〇六一 ▲合計當期利益金 三三、四四〇

皮革協定價格申請

內地보다二割高

朝鮮產品도一律로協定

朝鮮製革業組合에서는 皮革의 規格統一을 圖하는同時에 低物價의 國策에順應하여 皮革의價格을 抑制코저 協定價格을 決定하고 二十八日 當局에 協定價格認可를 申請하엿다 右協定價格은 內地에比하여 約二割비싼데 內地產品에 移入에要하는 諸費用을 加한것이오 朝鮮產品에對해서도 製革에要하는 諸藥品及 技術等을 거의內地에 依存하는狀態이므로 右와가치 一律히 二割高로 協定한것이다

朝鮮產無煙炭

十萬噸移出斷行

內地電力飢饉으로

關西를中心으로한 日本發送電의 石炭入手難에依한 電力飢饉은 드디어 深刻化되어 그範圍을 打開하고저 政府及當業者는 모두 積極的으로活動을하고잇는때에 朝鮮總督府에서는 右窮狀을 坐視할수업서 朝鮮內의 石炭需給現狀을 再檢討한結果 大體로 前途의豫測이 스게되엇스므로 鮮內向의 一部를가지고 그救援에進出하기로決定하고 二月中에 十五萬噸、三月中에五萬噸 合하여 二十萬噸의 無煙炭을 豫定以外에 內地에移出하기로되엇다 總督府에서는 이미當業者에對하여 積出指令을 發하고 먼저三陟으로부터는 二月初에 第一回積出을할터인데 無煙炭의 大量移出

增加에依한 內地의石炭飢饉은相當히 緩和될것으로 豫想되는同時에 朝鮮으로서 希望하고잇는 內地有煙炭의 朝鮮內移入도 漸次로 好轉될것으로期待되고잇다 內地移出十萬噸의 內譯은 如左하다

▲二月中(五萬噸) 江原三陟四萬噸 全南和順一萬噸
▲三月中(五萬噸) 鎭南浦 一萬噸 江原三陟三萬噸 全南和順 一萬噸

朝鮮產魚粉

對米輸出完了

朝鮮產 魚粉의 第三國輸出은 歐洲動亂의 影響으로 三菱、三井 兩社의 對歐洲向(主로獨逸)의 契約에 三菱四千噸、三井五百噸은 모두 契約解除分을 亞米利加에 輸出키로되어 三菱의 米國市場과의 本年度契約分 三萬二千噸은 日米通商條約廢棄後의 狀勢를 念慮하고 同社에서는 條約廢止前에 全契約量의 輸送을 完了하는同時에 前記歐洲向 契約解除分 四千五百噸도 可及的速히輸送할것을 期하여 三十日 淸澄丸으로 二千噸、二月中旬頃 殘餘의 二千五百噸을 紐育及 羅府에向하여 輸送하기로 決定하엿다

論山水利設立陳情

黃海論山郡守、西島忠南道議外 邑有力者四名은 三十日午前十時 農林局을訪問하고 論山水利組合의 設立에 對하여 陳情하엿다

現物更落

新의崩落으로

一、淺間丸事件을 契機로 對英關係가 憂慮될것등이고 또砂糖株는 減產을傳하여 從來의增產豫想이 一變하여 激減豫見되는 特殊材料도잇서 輕工業軍工業如何를 不問코 全面的으로軟弱人氣를 뵈하고잇섯다 特히 重工業株、砂糖株、船株等의 低落이 激甚하엿다 朝鮮物은 滿外로底堅商狀을 뵈하엿스나 部分的으로는 二、三十錢低를示한것도잇섯다

一、二千四百圓의 高價에 잇던 生絲가 十五圓高(千五百圓)로 慘落된것

一、對米國無條約事態의 前途透視難

東株長短期取引員

合倂申請正式承認

【東京電話同盟】昭和十三年一月 問題化되엇다가 實現되지안코 中絕되엇든 合倂問題는 最近 短期取引員과 長短期取引員組合에서 同意見一致를 보아 大體合倂하기로 決定되어 二十九日 一般取引員組合에서는 二十九日의 臨時總會를열어 이것을 正式承認하여 今後手續上問題를 東株에 옴기로하엿는데 東株側에서도 一般短期兩組合의 合倂에 贊意를 表하고 二月上旬 短期專業者의 資金概略書를 添付하여 東株에서 商工省當局에 內示할터이다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三圓九의 低價를 示하고 東新도 七圓暴落 鐘紡百六十圓六 鐘新百三圓九 安取十九圓二에 大引

前場再落

今朝는 東新百三十八圓二 鐘紡百六十圓二十錢 日新百三圓四 鐘新六十圓五 安取十九圓五低인 百三十八圓고 鐘紡二百四十五圓六 鐘新二百六十五圓七에 下押寄付 되엇든 東新百三十八圓一 鐘紡百六十圓二 鐘新百三圓九 安取十九圓五

好材皆無狀態

議會再開를압두고 米內內閣의 諸政策은 着着確立을 보고잇는데 現下의 當面의 急務인 惡性「인플레」防止에는 어느程度의 「데플레」政策을 쓸수밧게업는形勢이므로 至今까지 「인플레」를 進行하여온 唯一한材料이든 「데플레」를 고잇든만큼 「데플레」來라는 소리만들어도 市勢에는 相當한 威脅을주고잇다 그우에 問題의 電力不足이 緩和될것을 보지못하고 아직도 根本的對策을 樹立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狀態이어서 各會社의 業績이 低下될것을 豫想하게되엇스므로 小戶筋의 手控이 生하여 人氣的으로 暗鬱한것이 되엇스므로 小戶筋의 手控이 生하여 今朝도 一齊히 安값으로 되엇는데 目下 好材料할것은 거의 업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崩落原因

【東京電話商通】連日不勢를 뵈고잇던 株式市場은 當限納會와 함께 一旦 整理를 뵈엇든가치 보엿섯는데 …… 出盡한것가치 보엿스나 또 困難할것으로 보이엇다

株式 慘落

鐘新中心

今日의市勢 三十日

三十日의 市場은 又復一齊히 慘落을 演하여 도리어 納會前의 落潮를 急激히 하엿는데 그原因으로서는

一、電力制限의 强化로 關西는 大停電도 不得已하다는 小破局的事態를 招來하여 事業經濟의 打擊이 再大할것으로 보인것

（米內內閣의 「데플레」政策）을 압두고

▲……米內內閣의「데플레」政策

延取 無賣買로 閑散

前場不成 今朝도亦是全然 無賣買에 終始하엿다
後場傍觀 後場도 亦是無 賣買로 終始하엿다

▲東京國債 ▲甲號五分一五、八〇▲一回四分一〇三、五五▲二回四分一〇三、四五▲米貨五分三九六、〇〇

海外經濟 廿九日

[illegible]

十錢

▲……米內內閣은 所謂老練家의 集合인만큼 모두言動이 愼重

▲……財政經濟策에 잇서서도 强制를 避한다는것이 한개特性

▲……그러나 實勢는必然코 强制策을 招來하고야말것

▲……斷片的으로 漏洩한바를 보아도 日傳票制實施 日强制貯蓄等의 모드强制策

▲……世論이 저은 强制를 取한다면 別個意味이겟스나……

▲……傳票制는 實濟防止、最低限度生活統制로서 有效適切한것이지만 傳票를 가지고서도 살수업는「까닭」이 가치되어서는 큰일

▲……强制貯蓄도 貨幣價值 動搖 物價騰貴를 막지안는다면 將來에의 生活保障이 안되는 것이니 거정꺼리

▲……適正價格도 九·一八價格以上으로 決定되는것이 常例인만큼 國民의 失望을 엇기 가지고라

▲……再開議會에서의 演說을 보면 좀더明瞭하여질것징

古手帖에서 ⑦ 스케치生

淸商의가지가지

袁世凱의 號令아래 壬午以後淸商이 몰려들어 全朝鮮坊坊曲曲에 確乎不動의 商圈을 掌握해서다 그들이 同順泰票이니 裕豐德票이니 二十五兩、五十兩의 紙幣를 마음대로發行하고 一般에게 流通되다가 日淸戰爭以後에는 못쓰게되엇는데 그들淸商(世稱華商)은 惡德商人도 만하거니와 정말 紳商도 不少하엿다.

不良한 大部分의 小商은 흥정하다가 안사면 「왜안사 나쁜사람이」 하고 辱하고따리기까지 하엿스나 紳商들은 去來하던 朝鮮商人이 失敗하면 債權回收에만 汲汲하는것이 아니라 돈을 더 대주고 장사가 恢復되도록 애쓰는것이 普通이엇스니 淸商은 大成한사람도 적지아니하다.

어淸商이 萬寶山事件으로 大部分 逃亡가고 支那事變後 一切撤退하엿다가 요지음 다시 건너오기 시작하고잇는데 淸商의 隆盛時代는 지나간지오래고 그들의 活動舞臺는 아니리다.

見樣紙와紙貿易

淸商이 야기난끄테 紙貿易에對해서 一言하겟다 지금도 朝鮮紙가 滿洲에서 歡迎을받고 잇거니와 옛날에는 燕商道의 窓戶紙가 만히갓다. 六十年前에 譯官쫒차가든 中人이 門見樣을 내가지고 그見樣대로 窓戶紙를 떠서 輸出햇는데 그들은 品質은 보지안코 重樣으로 去來하는것을알자 土

粉을 만히석거 무겁게만들어보내니 奸詐를 바를수 잇겟는가 朝鮮紙의 聲價는 一敗塗地하고 信用이업서저서 다시 이것을 改良해서 信用을 恢復하는데 苦心이 막혓다한다.

朝鮮紙의聲價는 大打擊을바닷 예나 지금이나 輸出品에는 精巧、誠實로販路를擴張하여야하는것은 變지안는道理이다

財界秘話

三國志 (八十四)

韓 龍 雲 譯
熊 超 畵

孫策의 蹶起 (六)

… 손책이 사례하되 「선생의 말슴이 글러가는 나다 두려하거니와 천하 사세를 무릇 지금은 아니하면 장차 아니하랴 하노라」

하고 한동을 나가기를 앞에 당이 다리위에 이르러 진문가 일주이 정한쾌를 하고 …… 쏘아서 엇던우이 군사를 목려 치고 두사람이 몰을 몰려 … 에 어떤 직치니 엄여가 다러나 는지라 한당이 군사를이끌고 치고 처서 창문(閶門)아래에 어르니 적군이 쪽겨서 성안으로 드러 갓다.

손책이 군사를 몰아 오지의 오성(吳城)을 에우니 아울러 나어가 두길로 나누어 … 나도 한사람도 나와서 싸우지 안는지라 손책이 군사를 거느 고 창문바게 이르러 불러 효유하니 성위에서 한 비장이의 인존으로 문루의 들보를 잡고 오른손으로 성아래를 가리치며 크게 꾸지거늘 태사자가 말위

에서 활을 가지고 화살에 메어며 좌우를 도라보고 「내가 저사람의 왼인손을 쏘리라」

말이 마치지 못하야 시위소리가 이러나며 파연 그사람의 왼인손을 마처서 들보에 못을 주매 성위와 성아래의 보는자가 소리처 칭찬하지 안는사람이 업는지라 여러사람이 그비장을 구하야 성안에 드러가니 엄백호가 크게 놀내어

『저쪽편에 그러한 사람이 잇스니 어찌능히 대적하리오』

하고 화해하기를 의론하얏다. 이튿날에 엄여로하야곰 성에 나가 손책을 보게하니 손책이 엄여를 청하야 술을 마실새 술이 취하매 엄여에게 뭇되 『형의뜻은 어찌하고자 하느뇨』

『상군으로 더부러 강동을 반씩 나누고자 하노라』

손책이 크게노하야 『쥐가튼 무리가 어찌감히 나하고 명하야 엄여를 베이라 하니 엄여가 칼을빼고 몸을 니르키는지라 손책이 칼을 날려 베니 엄여가 손을따라 거꾸러진 지거늘 머리를베어 사람으로 하야곰 성안에 드려보내니 엄백호가 대적지 못할줄을 알고 성을버리고 다라나는지라 손책이 군사를노아 쪼치매 황개는 가흥을 취하고 태사자는 오정을 취하니 두어고을이 다 평하얏다.

엄백호가 여항(餘杭)으로 다라날새 길에서 노략질 하다가 그곳사람 능조(凌操)가 시골사람을 거느리고 치매 엄백호가 회계로 다라나는지라 능조의부

도움으로 『너는 탐하는 마음이 족하지 못하여 이미 오군을엇고 또 나의 지경을 빼앗고자하니 오늘에 특별히 엄씨로 더부러 원수를 갚으리라』

손책이 크게노하여 정히 싸우고자 하더니 태사자가 먼저 나가는지라 왕랑이 칼을 춤추며 나와서 태사자로 더부러 싸울새 수합이 못되어 왕랑의장수 주흔(周昕)이 달려들어 싸움을 도으매 손책의 진에서는 황개가 말을달려 주흔이와 싸우매 양편의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서로 어우러저 싸울새 홀연히 왕랑의 뒤진이 어지러우며 한떼군사가 뒤로부터 엄습하여 오니 원래 주유가 정보로 더부러 군사를이끌고 비낀길로 옹기엇다 압뒤로치매 왕랑이 적은군사로 만한군사를 대적하지 못하여 엄백호와 주흔으로 더부러 길을뚫고 다라나 성안에 드러가서 사다리를 것고 성문을 구지닷거늘 손책의 큰군사가 형세를따라 쪼치 성아래에 이르러 군사를 나누어 네문을치니 왕랑이 성안에서 손책의 군세가 심하믈 보고 다시 군사를나가 싸호고자 하더니 엄백호가 가로되

『손책의 형세가 심히크니 그대는 마땅히 개천을 깁게하고 성을 놉히어 굿게지키고 나지아니하면 한달이 지나지 못하여 적병이 양식이 다하야 제풀로 물러가리니 그때에 좃차가서 엄습하면 싸우지 아니하고 파하리라』

왕랑이 …

저 두사람이 손책을 맥칠려고 회계에 다 이르니 태수 왕랑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니 엄백호가 무리를 모아 서진(西津)에 진을 치고 정보가 자와서 크게 파하고 밤을도아 회계에 이르니 회계태수 왕랑(王朗)이 군사를 이끌고 엄백호를 구원하랴 하거늘 『그것은 올치못하다 손책은 인의잇는 군사를 쓰고엄 백호는 사나운 무리니 도로혀 엄백호를 사로잡아 손책에게 드리소서』

왕랑이 그사람을보니 여조(餘姚)사람 우번(虞翻)이니 당시의 고을 아전이라 왕랑이 노하여 꾸지즈매 우번이 탄식하고 나가는지라 왕랑이 군사를 거느리고 엄백호로 더부러 진을 산음(山陰)들에 벌리고 손책이 말을 마저서 가지 진을 치고 나와 왕랑에게 말하되

「내가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절강(浙江)을 편안케하랴 하거늘 네가 무슨 도적을

市況

今日財界 三十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白米) 斗二圓二錢五
玄米(內地)(坊主) 石 [illegible]
七分搗白米(京城)(公定) [illegible]
◆雜穀(京城、卸賣價公定)
大麥 一六〇斤 [illegible]
裸麥 一一二〇斤 [illegible]
大豆 一四〇斤 [illegible]
稗山三等 [illegible]
◆株(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鐘新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圓)
綿糸 [illegible] 綿布 [illegible] 棉花 [illegible]

京城物價 三十日

[illegible]

銀行券 廿九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發行高、正貨準備、保證準備、貸出金、預金高、限外發行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大阪 金利 ◆東京 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手形交換高 ◆大阪手形交換高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十錢) ◆阪神鰯油(百斤) 阪神FOB沖入百斤 [illegible]
◆日本麥粉市勢(標印一袋二十二斤)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十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一六分一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東京長期取引組 ◆朝鮮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長期 ◆朝鮮短期取組[illegible]

棉花 綿布 生糸

[illegible]